

한라시론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올해 농업인들은 농산물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됐다. 크고 작은 태풍 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9월에 2개의 태풍과 9월 상순, 중순에 12일에 걸친 가을장마는 제주도 주력 산업의 하나인 월동채소 정식시기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묘를 3번씩 심어서도 실패한 경우들도 생겨났다. 이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농업인들에게 제주도에서 경영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급전적인 지원으로 농가경제에 도움이 돼 주었다. 피해 농업인 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의 70~80% 수준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대상작물도 많지 않고 대상재해도 태풍, 우박, 집중호우, 서리에서 강풍, 냉해, 눈피해 등으로, 그리고 대상 작물도 계속 확대됐다. 최근의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농업소득의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의 도입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확실성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없고 보험가입 대상작물을 1500여이상 재배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납입해야할 금액의 15% 이상 재배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납입해야할 금액의 15% 정도는 농업인이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 할 수도 있어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농업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농업에 각종 기술이 접목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작했다. 오래 전 남극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과학자들이 채소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물공장을 가지고 갔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다. 앞으로의 농업은 '95%가 기술이다'라며 특히 기상재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도시 중심의 건물 안에서 인공적으로 잘 조성된 식물공장에서는 쌀 채소나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가 대량 생산될 것이며 직원들은 가운을 입고 개입을 하듯 컴퓨터로 작물재배 시설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주변에서도 빠른 속도로 농장 관리기술이 변화 되고 있으며 스마트농장이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농업시설 온도관리가 가능한 자동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새롭게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재의 농사 방법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농업재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

매머드 조직 시설공단, 서둘러선 안된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발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쉽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시설공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시설을 전담하는 인력이 1000명(1105명)이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직전 서귀포시·남제주군 두 기관의 본청을 합친 정원(1074명)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 조직을 어쩌면 그렇게 쉽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다행히 제주도의회에서 시설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24일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정이 어려운 제주 상황에서 도민형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직권상정 보류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해 당사자간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

서 시설공단 설립이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원 도정이 들어선 이후 제주도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2014년 7681명에서 2018년에는 8895명입니다. 4년새 무려 1208명(15.7%)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동안 늘어난 공무원이 시설공단을 설립하고도 남을 인력입니다. 이제 다시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가뜰이나 제주도의 빛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원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제주도의 체구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기침체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 의장의 지적처럼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설공단은 결코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

개발공사 파업 현실화... 파국만은 막아야

국내 대표적인 먹은샘물인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노조는 24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회의의 조정 결정에 따라 27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공사 창립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발공사 노조는 지난 해 10월 발생한 '삼다수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결성됐습니다. 이어 7월부터 19차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끝내 파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조는 '경영진 퇴진까지' 파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긴 하지만 그 전에 노사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영진에서도 '삼다수공장 사망사고'로 개발공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제기됐던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내 파국으로 치닫해 되면 가공용 감귤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감귤가격 하락에다 소비부진으로 개발공사에서는 5만t의 가공용 물량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공용 감귤 적체물량이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어려움을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강 대 강 극한 대립은 파국으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도민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대화의 여지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제주도정 역시 적극적인 대화와 중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하루빨리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다문화 가정 이혼 대책 강화해야



김경섭
경제산업부 기자
kks@ihalla.com

제주의 다문화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언어·문화적 차이,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호남·제주 다문화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는 4686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410가구(9.6%) 증가했다. 다문화 가구원은 모두 1만5511명으로 출생·귀화 등의 내국인이 1만 2530명(80.8%), 외국인은 2981명(19.2%)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여성 가구원(8014명)이 남성 가구원(7497명)에 비해 많았

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인(27.1%)이 가장 많고, 한국계 중국인(22.1%), 중국인(19.3%)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다문화 혼인은 443건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문화 혼인 증가로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2.0%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지역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절되고 있지 않은 다문화 가정폭력을 비롯해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이혼도 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이혼은 189건으로 전년도 대비 18.1% 증가했다. 도내 이혼 중 11.5%가 다문화 가구의 이혼인 것으로 나타나 이 비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제주의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들을 가정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뉴스-in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재공모 8명 응모

서류·면접 종합해 2배수 추천 문수지사(대가축 6명, 중·소·소가축 4명)로 지역 읍·면·동 최일선에 배치돼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등 가축질병 검진사업을 수행.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 애할 과 약성가축전염병 발생대비 등 원 체계를 구축해 가축의 건강진단과 유사시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태윤기자

공수의사 읍면동 배치

○...서귀포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축산농가 질병예방 및 자율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2020년도 서귀포시 공수의사 10명을 위촉해 눈길. 위촉된 공수의사는 축종별 전

문수지사(대가축 6명, 중·소·소가축 4명)로 지역 읍·면·동 최일선에 배치돼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등 가축질병 검진사업을 수행.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 애할 과 약성가축전염병 발생대비 등 원 체계를 구축해 가축의 건강진단과 유사시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태윤기자

설 연휴 항공권 경쟁 치열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를 한달 앞두고 벌써부터 항공권 확보 전쟁이 치열.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내년 1월 2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제주출·도착 비행기 좌석이 매진 행렬.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 노선 항공권 구하기가 벌써부터 치열해지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설 연휴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항공편 운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김경섭기자

부고
신상진(주)천안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 소장 어머니 동래정씨 태근(후밀리타스·향년 84세)께서 서거 2019년 12월 24일 22시 4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26일(목)
발인일시: 2019년 12월 27일(금) 오전 9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분향실
장례미사: 2019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김기량성당)
장 자: 장지공원
남편 신유영
아들 신상진 며느리 임재연
상우 이현주
상훈 정인생
상범 이정아
*연락처: 신상진 010-3381-8985
신유영 010-2691-4914
신상훈 010-8266-3652
신상범 010-8664-379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군위오공 만표(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26일
부인 강희영 며느리 김미정
아들 오상훈
딸 오유미 사위 현수송
승희 서중철
숙미 강창선
지은 강태경
상희 한정철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